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풍부한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이 시도하는 도전

이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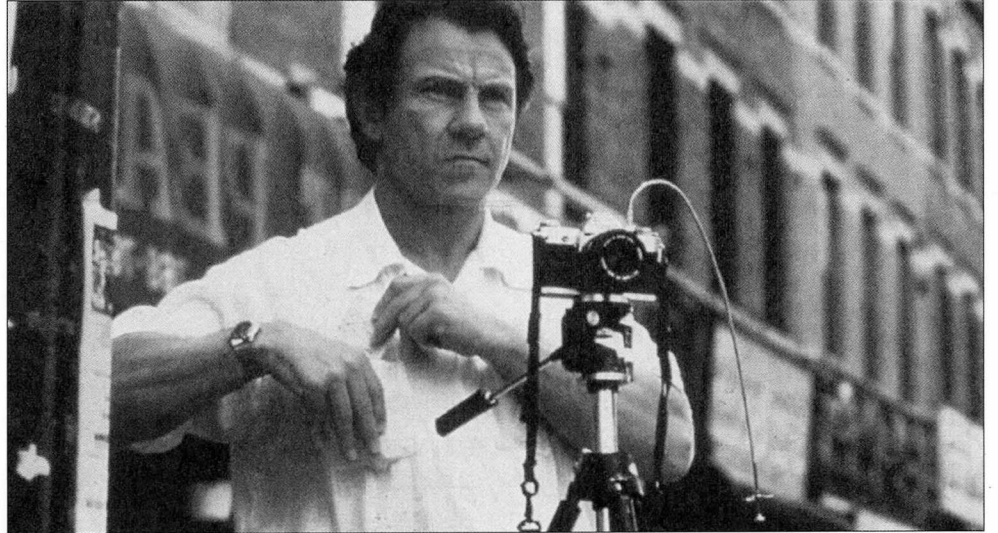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수년전 한국을 잘 아는 외국학자들과 함께한 어떤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사회학 이론의 시험장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질곡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풍요로운 소비사회를 구가한 듯했는데 느닷없이 IMF 한파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의 일만 같았던 계층간 갈등, 실직 문제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저러 소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 하며 또 그런 속에서 일상을 즐기는 보통 사람들의 태도는 합리적인 논리로는 조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논리적으로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게 살아오면서 체득한 또다른 삶의 논리인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는 삶의 각 장면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학에서 일상의 삶은 그 자체로 진지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실은 '이성'이라는 도구로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는 사소한 일들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설명과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않았다.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일쑤였다.

일상성과 일상의 사회학은 현재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이는 현대 사회학 이론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소개된 '일상생활의 사회학' 관련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부함을 느낌과 동시에 현실이란 보는 시각이 다양한 만큼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현재의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이다. 사진은 일상의 다의성과 무의미함을 그려낸 영화 <스모크> 중의 한 장면.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이 '당연한 것'을 통해 구체적인 것, 일상적인 것, 보잘 것 없고 진부한 생활, 그리고 평가절하되거나 과소평가된 것들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이리저리러한 이론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물에 대해 독특한 조망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인식론의 전환이며,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정치적 결정론의 산물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그 사회적인 것을 자율적인 개인의 결사체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계약상의 결과로 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한동안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거대한 설명체계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연구성과는 해외에서는 그리 새롭지 않다. 국내 학계에서도 점차 일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간된 책으로는 우선 외국학자들의 여러 논문을 소개한 《일상생활의 사회학》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 생소한 학자들이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전망과 연구방법 그리고 현실에의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편린들을 접할 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공유하는 문화적 의미

이와 함께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은 마르크스적 전통, 구체적인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일상의 실천 및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현실을 소외와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론의 소개에 초점을 맞춘 책들에 비해 이론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한 책도 최근에 출간됐다. '자기성찰의 사회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한국인의 일상문화》가 그것이다. 이 책은 이론적 분석보다는 한국인의 일상의 생생한 그림을 보다 깊고 면밀하게 그려내고자 한다. 한국인의 말과 소통, 옷입기·먹거리·꿈·만남·종교적 일상성 등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공유하고 있는 일상의 양식과 문화적 의미를 새로운 글쓰기

시도와 함께 해석해내고자 한다. 동일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지하철·자동차문화·음주·여가·TV보기·성·건강·주거문화 등에 관한 글이 《일상속의 한국문화》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의 생산과 교환의 관계

일상생활 연구가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해명하기 위한 작업이긴 하지만, 단지 특정한 이론을 기초로 한 경향적 연구가 아니라 사회이론으로서 잠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학 전반에 걸친 중요한 반성적인 시도의 한 줄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방법론들이 내적 파열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론적 '패치워크'가 일어나는 장소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좀더 깊이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인식론적 논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을 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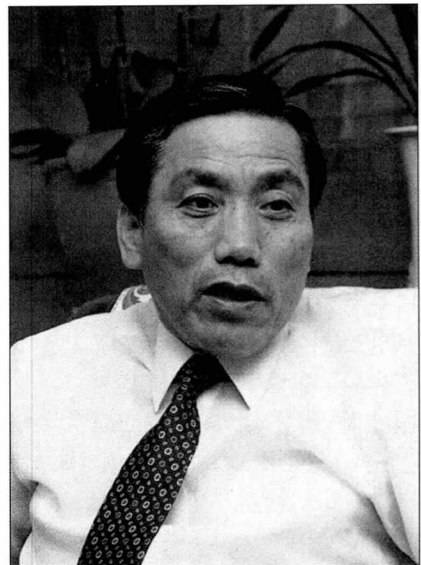
우선, 일상성을 논하면서 늘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과연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치경제적인 차원으로만 제한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학자 중 우선 앙리 르페브르를 들 수 있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사용했던 방법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의 사회학' 관련도서

책 이름	지은이 / 옮긴이	출판사
현대세계의 일상성	앙리 르페브르/박정자	세계일보사
구별짓기	피에르 부르디외/최종철	새물결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이상률	문예출판사
사회의 상상적 제도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양운덕	문예출판사
상징적 상상력	질베르 뒤랑/진형준	문학고지성사
현대를 생각한다	미셸 마페줄리/이상훈 외	문예출판사
놀이와 인간	로제 카이유아/이상률	문예출판사
호모 루덴스	요한 호이징가/김윤수	까치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외	한울아카데미
여가사회학	김문경	한울아카데미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강수택	민음사

“어려울 때 지혜 주는 어머니의 품”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펴내는 박석무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석무 이사장.

“조선시대 한 가정의 전통적 생활태도에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고향을 생각하듯, 사람들은 시절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위안을 구한다. 잊혀진 옛 가정의 가치와 덕목을 조선 문인들의 글을 통해 살핀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가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의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린 글을 모은 이 책은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지혜를 전통 가정에서 찾고 있다.

책을 펴낸 학술진흥재단의 박석무 신임 이사장(56)은 “조선시대 한 가정의 전통적 가치를 옛 어머니의 생활태도와 자녀교육에서 엿볼 수 있다”며 작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수정과 가필을 거듭하면서 이들의 삶에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지혜가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한다. 왕비의 할머니라는 고귀한 신분에도 검소하게 살았던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 해평 윤씨, 자녀 여섯을 모두 대학자로 키워낸 상년 김창읍의 어머니 안정 나씨 등은 특히 가슴이 남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4월부터 학술진흥재단의 신임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출판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다.

“학술진흥이 곧 출판진흥입니다. IMF 관리체제로 경제분야에 관심이 몰리면서 문화 부문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기초학문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출판이 학술적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면 학술진흥은 출판계에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는 수원(水源)이 된다. 학술진흥재단은 상업출판사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각종 학회지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출판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박이사장은 어려운 때인 만큼 학술연구의 결실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지원방법 및 원칙을 꼼꼼하게 재구성하는 등 의욕에 넘친다.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행 지원 법령상 교수에게만 제공하는 연구비 지

원의 확대. 처음이라 어려움도 많고 그 수도 적겠지만,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일단 물꼬를 터 놓자는 생각이다. 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소액다수제로 운영되어온 연구비 지원을 다액소수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학술지원은 곧 금전지원이었는데, 실제로 연구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강의를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방법뿐 아니라 원칙에 있어서도 자연과학보다는 인문학·한국학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한 사회의 발전여부는 인문학이 얼마나 건실한가에 달려 있다는 신념의 실천이다.

“외국고전의 번역 출간, 국내 한국학 서적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일은 학술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이지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전공과도 무관하지 않다. 호남대 객원교수로 한국철학사상을 가르쳤던 이력과 다산사상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경력에서 보듯, 특히 다산학에 대한 애정은 여러 권의 저서와 번역서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산기행》, 《다산산문선》,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을 펴냈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바뀐 날을 보내면서도 《흠흠신서》 완역과 《다산평전》 집필에 시간을 쪼개고 있다.

— 이현주 기자

그의 책으로는 《현대세계의 일상성》이 있다. 이와 함께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나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 이론이 좀더 복합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생산과 교환의 관계를 일상 속에서 더욱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문화·의상·담론·일상의 실천, 의례 그리고 상징적 표상 등의 생산을 말한다. 교환 역시 단순히 상품을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상품을 사용하는 방식, 즉 소비의 조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이론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적, 기능적 시각의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일상생활에서 상상적인 것과 상징의 인류학적 의미를 강조한 글들도 읽을 수 있다.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사회의 상상적 제도》와 질베르 뒤랑의 《상징적 상상력》이 대표적인 저작이다. 카스토리아디스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합리성 그 자체 기능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징적 차원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의 상상적인 것이 경제적, 기능적인 것의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뒤랑은 개념이란 제한된 상장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리주의는 이미지 영역에서 양극화된 특수한 구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상상은 사회심리적인 균형의 일반적인 요소로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성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의 단절은 없다고 보면서 합리와 비합리, 논리적인 것과 논리적이 아닌 것, 꿈과 이미지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일상의 삶을 파악하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놀이활동을 인간생활의 중요한 사실로

최근에 《현대를 생각한다》로 국내에 소개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미셸 마페졸리는 상상적인 것의 복원을 강조하는 뒤랑에게 영향을 받았다(뒤랑은 마페졸리의 스승이다). 감정, 주관적인 것을 통해 이해사회학의 틀 속에서 삶의 내부에서 경험되는 일상생활의 사회학을 그린다. 현실의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복잡성·다의성·일상성·불안정성 그리고 무의미함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이해사회학의 방법론적 탁월함을 주장한다. 그는 현대사회를 분석하면서 개인/합리성의 구조화가 사회적인 것/감성적인 것의 구조화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마페졸리는 그러나 이성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삶 자체를 구성하는 이성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사회학에서는 생산과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을 언제나 사회와 자연 환경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중심을 두었던 이론적 관심에서 일상생활의 핵심으로서 가사가 지니는 의미와 휴식, 여가에 대한 관심(성생활, 육아, 식사준비 등) 여러가지 가사노동, 텔레비전 시청, 관광, 독서, 스포츠 등의 여가생활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방향전환은 인간사회의 재생산에 관한 인류-사회적인 성찰과 연결된다. 앞서 말한 카스토리아디스나 뒤랑의 상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이론적 방향전환의 방법론적 자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제 카이유아의《놀이와 인간》와 요한 호이징가의《호머무텐스》는 비생산적인 놀이활동을 인간생활의 중요한 사실로 부각시키면서 놀이가 지닌 문화적 창조력을 잘 그려주고 있다. 이들의 글은 특히 일상생활의 현재 중심적이며 유희적인 모습을 밝힌다.

일상의 여가에 관한 논의는 조프르 뒤마저디에의 저작을 참고할 수 있다. 뒤마저디에의《여가와 문화》는 하루일과로부터, 노동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한가한 시간, 각자의 여가가 노동이나 교육, 가족 그리고 정치가 끝난 상황이 아닌 모든 사회적 행위가 일상생활 속에서 변형된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인의 여가에 대한 연구는《여가사회학》를 참고하면 좋겠다.

일상생활을 사회학의 시각에서 풀어낸 책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부함을 느낌과 동시에 현실이란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만큼 더욱 풍부해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